日, 불교 AI 다양화…활용방안 기대 'UP'

신란봇·천친보살봇 등 개발 완료
초기경전 부처님 말씀 중심 개발
선지식 가르침으로 대화 가능키도
산업·종교·학술계 끼칠 영향 기대

박영빈 객원기자



증강현실을 이용한 대화형 불교 AI들의 모습들. 사진출처=교토대학 보고서

챗 GPT와 같이 대화형 AI 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불교의 가르침을 학습한 대화형 AI들이 계속해서 개발돼 화제다. 9월 14일 일본의 '교토대학'과 'IT 미디어 뉴스'는 새롭게 개발된 AI, '신란봇'과 '천친보살봇'을 소개했다.

교토대학 소속의 '사람과 사회의 미래 연구원'의 연구팀과 불교 정신세계를 메타버스로 표현하는 개발팀 '테라버스'는 지난해 불상 모습을 한 아바타를 사용하는 대화형 AI '붓다봇'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엔 신형 AI들의 개발에 성공했다.

개발에 참여한 쿠마가이 세이지 스님은 "지난 붓다봇은 초기경전인 〈숫타니파타〉와 〈법구경〉을 이용해 부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개발된 신란봇과 세친봇은 부처님에 이어 일본과 인도의 옛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며 새롭게 개발된 AI들에 대해 소개했다.

신란봇은 일본 최대의 불교종파인 정토진종의 개조인 신란을, 세친봇은 인도 대승불교의 양대 학파 중 하나인 유식학파의 대논사인 세친보살이라는 불교사의 가장 뛰어난 두 위인을 모델로 한 AI다. 지난 붓다봇이 초기불경을 학습자료로 사용했다면, 이번 신란봇은 신란의 저술인 〈정신게(正信偈)〉를, 세친봇은 〈구사론〉을 학습자료로 이용했다. 이에 따라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각자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다.

각 AI 봇에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붓다봇은 '진리를 믿고 흘러가는 마음을 바라보라'고 대답한 반면 신란봇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불하고, 아미타불의 자비에 귀의하라'고 대답했다. 한편 세친봇은 '고통은 번뇌의 한 형태이므로 그 존재의 요소를 분석하여 적멸을 추구해야한다'는 유식학적인 개념의 대답을 내놓았다.

연구팀은 이 봇의 개발에 대해 "앞선 붓다봇과 함께 이 AI봇들은 산업계, 종교계, 학술계에 끼칠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 봇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에 불교적 관점에서 대답하는 대화형 AI이기에 그 활용방안이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종교계와 학술계에서는 AI의 학습방향과 그 폭에 따라 지금까지 한 번도 제시된 적 없는 교리의 해석과 학설이 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추가적으로 경영이나 경제와 같은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불교적인 경영 컨설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교토대학 측은 개발보고서를 통해 챗 GPT를 비롯해 많은 대화형 AI가 정보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받고 있으나 개발된 불교 AI들은 모두 원전을 알고리즘으로 학습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도 자유롭다고 밝혔다.

또 연구팀은 "현재 외국 불교계에서도 공동개발의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 각 나라별 불교전통에 따른 대화형 AI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부탄과 공동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中, '불교의 중국화' 캠페인 진행…반발도

중국 이념 가르치는 선전 통로
모든 종교활동 당 관리 요구도



중국 오대산에서 열린 불교의 중국화를 위한 특별과정. 사진출처=중국불교협회

최근 중국에서 '불교의 중국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전통적인 개념의 현지화가 아닌 중국식 사회주의의 개념에 불교를 적용하려는 시도다. 9월 14일 중국 인권뉴스 전문매체인 '비터윈터'는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진행 중인 불교의 중국화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9월 5일, 중국 산시성 우타이산(五臺山)에서 '중국불교협회 불교 교육 업무 및 교풍 훈련 과정'이 특별히 개최됐다. 우타이산은 중국 불교 4대 성산 중 첫 번째 산으로 꼽히며 전세계의 불교도들이 참배하는 문수성지다. 특히 우타이산은 1000여 년 전인 당나라 때부터 한중일 삼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도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도 문수성지로 인정받으며 인도에서 전해진 문수신앙을 중국 현지의 개념에 정착시킨 중요한 예시로도 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이미 중국화 된 중국불교의 새로운 '중국화'에 대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중국화된 중국불교에서 진행 중인 이 중국화 과정은 중국정부가 주도한다. 이 중국화의 목표는 불교를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가르치고 선전하는 통로로 만드는 것이다.

우타이산에서 진행된 훈련과정에서 좌장을 맡은 중국불교협회장 옌쥐에(演覺) 스님은 기조강연에서 "불교를 '중국화'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시진핑의 신시대의 중국에서 강조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정신을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여기 모인 스님들과 교계 관계자들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종교사무 관련사업에서 시행해야 하는 4가지 지침을 반드시 숙고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의 4가지 지침은 지난 2021년 시 주석의 연설에서 발표한 것으로 주요한 내용은 종교지도자들과 신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 시진핑 사상을 교육하고 배워야하며, 모든 종교활동장소와 그곳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당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훈련과정에선 오대산과 전국각지에서 100명이 넘는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했고, 당의 관련업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편 이러한 중국정부의 움직임에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의 한 누리꾼은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에 입각한다. 이러한 무신론자의 단체가 종교를 이용하겠다는 생각부터 이미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시진핑의 지침으로 인해 교리는 물론 역사적 내용에서도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통제와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로운 불교의 가르침이 정부가 원하는 입맛에 재단되어 배포되고 있다"며 교육의 자유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박영빈 객원기자

무비웹, 불교영화 7선 소개…한국 작품 2개 포함 눈길

대중에 철학적 메시지 던지는
대표 문화예술 '불교영화'들


보리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는가 장면 일부. 사진출처=무비웹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가 불자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헐리우드 기반 엔터테인먼트 뉴스 웹사이트 무비웹(Movieweb)은 "영화는 새로운 통찰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철학적 사고를 전달하는 일종의 예술"이라며 "불교 영화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는 대표적 문화 예술"이라고 평가했다. 종교이자 철학으로써 불교가 대중에게 일종의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비웹은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동양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 청중에게는 생소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불교의 본질과 느낌을 담아낸 영화도 있다"고 덧붙였다.

티베트 불교부터 일본 선(禪)까지, 무비웹이 선정한 역대 불교 영화 7선을 소개한다.

▲보리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1989) 선불교에서 선문답은 정신적 탐구로 통찰에 다다르기 위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영화는 고아 소년, 성인 승려, 노인 선사 등 세 사람의 삶을 담았다. 느린 전개 속도와 영화의 아름다운 단순함으로 인해 관객에게 명상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감정을 통해 선을 성공적으로 전달한다.

▲리틀부다(1993)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은 부처님 이야기와 티베트 불교 문화를 이해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에 철저했다. 그는 영화 전반에 걸쳐 매우 존경받는 티베트 불교 라마 Khyentse Norbu를 고용해 그들과 상담한다. 하지만 이 영화의 포인트는 고타마 싯다르타의 이야기를 영화 속 세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전달되는 경이로움이다.

▲더 컵(1999) 월드컵 경기를 보고싶어하는 수도원 승려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그러나 텔레비전, 위성, 좋은 신호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영화는 승려들의 '월드컵 시청' 도전기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그라운드호그데이(1993) 철학적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 영화는 윤회 등 불교 사상과 잘 부합해 종교학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불교 영화제에서도 자주 상영됐다. 빌 머레이(Bill Murray)가 연기한 기상캐스터 필 코너스(Phil Connors)가 같은 날을 계속해서 재현하는 불가능한 현실을 다루는 과정을 담았다.

▲쿤둔(1997) 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가초(Tenzin Gyatso)의 초기 생애를 다룬 서사적이고 포괄적인 영화다. 영화 속에서 달라이 라마가 경비초소로 걸어가자 인도인 경비병이 그에게 다가와 경례하고 묻는다. "당신이 부처님이십니까?" 달라이 라마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로 대답한다. "물 위의 달. 나를 보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당신은 자신을 보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2003) 개봉 당시 로저 에버트로부터 "나에게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준 영화는 거의 없다"는 칭찬을 받은 영화. 한 남자의 삶의 계절을 1년의 계절처럼 어린 시절부터 승려가 되는 여정, 그리고 말년으로 안내하는 고요하고 미묘한 느낌을 준다.

▲젠(2009) 중국으로 구법 여행을 떠난 일본 승려 도겐 젠지(Dogen Zenji)의 이야기를 풀어낸 영화다. 도겐은 이후 일본 선종인 소토(Sōtō)를 설립한다. 다카하시 반메이 감독이 극본과 연출을 맡았다. 박정현 객원기자

"외국인 불교 유적 방문, 위협 아니다"

유적 훼손 우려…아시아 불교도 10명 중 7명 "괜찮다"

동남아시아 내 불교권 국가 여행 수요가 높아질수록 유적 또는 전통 훼손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지만 동남아 국가 불교도 10명 중 7~8명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적절하다고 답해 눈길을 끈다.

9월 15일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5개국 불교도 대다수가 불교도가 아닌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사찰, 탑, 담마당 등 불교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국가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국가의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국의 불교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싱가포르는 83%, 말레이시아는 77%, 캄보디아는 75%, 태국은 75%, 스리랑카는 70% 등 순이다.

또 이들 국가의 대다수 불교도들은 '불교도가 아닌 관광객들이 명상이나 염불과 같은 불교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답했다. 특히 스리랑카는 무려 93%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이밖에 캄보디아 91%, 태국 90%, 싱가포르 86%, 말레이시아 6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당수의 불교도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외국인들이 자국의 불교도들과 결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문득' 찾은 사찰에서 '으레' 지나치는 것들
흔하고 오래된 것들 안에 깃든 우리 역사와 문화, 옛사람들의 염원!

당신이 사찰에서 발견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허투루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알면 알수록 보이는 사찰 구석구석 숨은 보물찾기, 마지막 라운드!

사찰이 '숲속의 박물관'인 이유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 불상과 불화, 전각 등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지나친 조각, 돌기둥, 장식 하나하나에도 사연이 있으니
사찰 속 흔하고 오래된 것들의 놀라운 역사!

- 암벽 위에 새기고, 바위를 다듬어 만든 '사찰의 석조물'
  마애불 | 석탑 | 석등 | 승탑 | 노주석 | 당간지주
-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 '사찰 속에 숨겨진 의외의 보물'
  수미단과 탁자 | 계단과 석축 | 해우소 | 백자연봉 | 청자 기와 | 오리 조각 …

최신간



노승대 지음 | 올컬러 | 432쪽 | 30,000원

사찰에 가면
문득
보이는
것들

사찰 속
흔하고
오래된 것들의
놀라운 역사

40여 년 경력 사찰문화 전문 답사가와
함께 떠나는 절집의 '보물찾기'!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노승대 지음 | 512쪽 | 28,000원

게, 수달, 토끼, 돼지에서
도깨비, 야차, 삼신할미, 신선까지
주지스님도 몰랐던
사찰 구석구석 숨은 보물찾기!
400여 컷의 화보로 볼거리가 풍부한,
술술 읽으며 문화와 역사를 꿰는
크로스 오버 불교문화 결정판!



잊혔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찰 속 숨은 조연들
노승대 지음 | 456쪽 | 30,000원

사찰 구석구석 기묘한
존재들에 얽힌 진귀한 비밀!
사찰이란 무대 위에서 황금 조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시왕, 저승사자, 사천왕, 금강역사,
나한 등 초월적인 능력과
기괴한 외모를 지닌 이들의 역사!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